

EU 연구혁신 주간 동향 보고

<’25.09.24., 한-EU연구협력센터>

○ 자하리에바 집행위원, “아심차고 현실적인” 유럽단일연구공간(ERA) 법안 마련 계획(9.18)

- 자하리에바 집행위원은 유럽단일연구공간(ERA) 법안을 통해 EU의 분산된 연구 시스템과 이동성 장벽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 강조. 자하리에바는 동 법안은 기본 원칙을 반복하는 것이 아닌 법적 구속력이 있는 의무를 도입하여 현실화하는 것을 목표로한다고 언급
- ERA 법안의 첫 번째 주요 요소로, 집행위는 2023년 2.22%에 그쳤던 R&D 투자를 GDP의 3%로 증가시키기 위해 인센티브를 도입할 계획
- 두 번째 주요 요소는 국가 간 자금 조정 방식으로, 법안은 회원국들의 경제발전 수준과 혁신 생태계 성숙도 차이를 고려하여 연구 지원을 전략적 우선순위에 맞추는 데 초점
- 세 번째로는 연구자들의 근무 조건 개선, 지식과 인재의 유럽 전역의 ‘순환’을 촉진해 “다섯 번째 자유”를 구현하는 방향과 일치함을 강조

○ ERC 의장, EU 연구자금 단일 규칙집 도입 시 “경직성으로 인한 프로그램 붕괴 위험” 경고(9.18)

- 유럽연구위원회(ERC) 렙틴 의장은 EU 집행위가 추진 중인 연구자금 행정 절차의 단일화 계획이 ERC를 포함한 다양한 연구 프로그램의 특수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경고
- 각 연구기구에 따라 연구 목표 수행, 중소기업 지원, 연구 컨소시엄 및 개별 연구자 지원 등 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맞춤형 절차 필요성을 지적
- 단일 규칙집이 도입될 경우, ERC가 기존에 활용하던 맞춤형 방식(외부 전문가 채용, 평가위원 명단 공개 등)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고 설명

○ (기타) ▲EARTO, 새로운 EU 연구·기술 인프라 계획을 위해 추가적 자금 지원 강조(9.18) ▲유럽 기업 지도자들,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과 회동 ... 전략적 우선과제의 신속한 이행 촉구(9.16) ▲집행위, ‘EU funding & me’ 모바일앱 출시(9.16)